베테랑은 어떤 모습으로 남는 것이 아름다운가

- 전인권과 한영애

신 현 준 | 문화평론가

공연 문화와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주 5일 근무 라든가 '주 40시간 노동 에 관한 논의가 내게는 새삼스럽다. 여가 시간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공연을 보러 갈 것 아닌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변신이 좋은가, 예전 모습 그대로 남는 게 좋은가라는 질문도 여러 케이스들을 둘러본 뒤에 대답할 문제다. 어떤 경우든 몇 되지도 않는 현역 베테랑 뮤지션들이 팬과 함께 아름답게 나이들어가기 위해서는 열성적인 팬들의 지지(이런 건 늘 있기 마련이다) 못지 않게 정책과 제도의 뒷받침은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 밝혀둔다면 이 글은 두 베테랑 음악인의 우열을 비교하려는 것이 아니다. 굳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렇게 읽힐 것 같다는 우려가 앞서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이 두 음악인에게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많았다. 무엇보다도 '1980년대 언더그라운드 에서 둘은 '남녀 대변인' 같은 존재였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했다 '는 표현에 가장 어울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를 살아온, '진지하게' 살아온 사람 치고 이들의 목소리에 영향 받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물론 진지한 삶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일의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통일 그날 음악회』의 뮤지션들

실제로 한영애는 이번 공연 말미에서 <행진>을 불러 유대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행진>과 <누구 없소>가 발표된 지 15년 뒤에 가진 무대에서 둘의 모습은 사뭇 달라 보였다. 한 가지 더 지적해 둘 것은 내가 직접 본 전인권(과 그가 속한 밴드 들국화)이 섰던 무대는 단독 공연이 아니라 합동 음악회의 한 순서라서 공정한 평가에는 한계가 있을 듯하다. 합동 음악회란 2001년 6월 9일 연세대학교 노천강당에서 열린 『통일 그날 음악회』를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공연의 기획자가 '전인권' 으로 되어 있고 무대에 함께 했던 이은미, 사랑과 평화 등도 전인권의 영향력 하에서 함께 무대에 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인권이 주도한 공연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통일 그날 음악회』는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성인으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여러가지 생각을 자아내게 하는 자리였다. 이 음악회는 1987년과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중후보 '로 출마했던 백기완 선생이 운영하는 노나매기의 후원을 겸하여 마련된 것이었다. 말하자면 1980년대식 문화공연과 1990년대식 록 페스티벌이 결합된 자리였다. 다시 말해

1980년대 이후 선진국들에서 성행했던 '양심적 콘서트'라는 메가이벤트에 가까운 행사라고 볼 수 있다. 이 날의 공연이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이러한 결합을 잘 수행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단정적으로 답하기가 힘들다. '취지 따로, 공연 따로'였다고 지적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상이한 장에서 자신의 몫을 묵묵히 수행해 온 사람들의 소중한 만남'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첫 발을 내딛었을 뿐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2000년대라는 상이 아직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판단은 뒤로 미뤄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이 글의 주된 대상은 이런 성격의 콘서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이 행사를 주도한 전인권과 들국화의 무대에 대한 평가다. 간단히 말해서 이날 들국화의 공연은 지난해 예술의전당 야외무대에서 있었던 공연, 그리고 그 뒤 소극장 학전으로 자리를 옮겨 치러진 공연을 본 사람이라면 '식상하다'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무대였다. 물론 이 자리에 모인 사람이 들국화의 공연을 자주 본 사람이 많지 않았으므로 이런 평가는 다소 일방적일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내 세상> <매일 그대와> <사노라면> <세계로 가는 기차>로 이어지는 연주는 작년의 무대와 똑같았다. <그것만이 내 세상>같은 체력을 요하는 코러스 부분에서 관객을 향해 마이크를 대는 것은 여전했다. 다행이라면 전인권이 노래 제일 마지막에 B♭까지 올라가는 절정 부분을 큰 무리없이 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사노라면>의 중간부의 "째째하게 굴지말고 가슴을 쫙 펴라"라는 부분, <세계로 가는 기차> 마지막의 "너도 가도 나도 가야지" 부분에서 관객과 함께 '선창/후창'을 반복하는 것도 여전했다. 그런데 그걸 여러번째 본 나로서는 처음에 느꼈던 즉흥감 대신 지루함이 다가왔다. 여전한 들국화의 팬들은 그들만큼이나 여전한 전인권의 카리스마를 느끼면서 집단적 신명을 즐기는 모습이었지만….

또하나 여전했던 점은 밴드의 구성이다. 한국의 주류 록 음악(이게 영미 사회의 록 음악처럼 '떼돈 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의 공연에서 밴드 구성에는 특정한 기준이 존재한다. 대략 기타 둘, 베이스 기타 하나, 키보드 둘, 드럼 셋트 하나다. 이날도 비슷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기타가 하나였고, 드럼이 둘이었다는 점이다. 기타는 사랑과 평화의 최이철이, 드럼은 역시 사랑과 평화의 드럼주자와 주찬권이 각각 담당했다. 공연 마지막이라서 음향의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상태라 드럼이 두 셋트 있다는 것이 하나 있는 것에 비해 어떤 특별한 효과가 있는지는 감지하기 힘들었다. 단지 이렇게 변칙적으로 밴드를 운용해야만 하는 상황을 나는 계속 아쉬워 했다. 작년 공연에서도 같은 편성이었지만 그걸 '과도적'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들국화의 음반이나 공연에서 최구희나 손진태의 특유의 기타 톤을 좋아했던 나로서는 아무리 출중한 기타리스트라고 해도, 상이한 스타일의 연주인인 최이철의 기타가 들국화의 음악에 썩 부합한다고 말하기는 힘들었다.

팬들은 이런 점도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하긴 대중음악 공연이 주는 쾌락이 연주의 묘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대변자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울 수 있다. 이건 하찮은 대중음악이나 훌륭한 대중음악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달리 말한다면 앞으로 들국화의 공연은 '사운드를 통해 청중을 사로잡는' 것 못지 않게 이런 사운드 외적인 요인에 의해 많이 좌우될 것이라는 말도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새 음반이 나올 때까지 들국화의 공연은 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고, '1980년대 민중가수'인 윤선애가 특별 게

스트로 출연하여 전인권과 함께 <아침이슬>을 부르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공연장을 나섰다.

한영애의 새로운 음악적 시도

다음날 한영애의 공연을 보기 위해 대학로로 가면서도 나는 큰 기대를 걸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 한영애의 공연도 여러번 보았기 때문에 '신곡'은 몇 개 없을 것이 분명하며 심지어 나는 한 사람의 팬의 입장에서 이번 공연의 '흥행'에 대해서도 염려했다. 하지만 공연은 전회 매진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예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2층의 구석자리에 앉아야 했다.

공연장에 입장하면서 맥주 한 잔과 새우깡을 나누어 주는 것도 이색적이었지만, 더욱 이색적이었던 것은 공연이 시작되자마자 처음 무대에 등장한 인물이 '턴테이블리스트'였다는 점이다. 그는 케미컬 브라더스 *the Chemical Brothers*의 <Block Rockin' Beats>를 틀고 턴테이블을 문질러 대면서 리듬을 만들어냈다. 이어 헐렁한 바지와 야구모자를 쓴 젊은 애들 두 명이 나와 열정적으로 랩을 해댔고, 이어 악기연주자들이 차례차례 등장하고 한영애는 제일 마지막으로 나왔다. 표준적으로 편성된 밴드의 연주에 큰 기대감을 갖지 않았던 나 같은 사람에게 '한 방 먹이는' 순간이자, 공연 타이틀이 왜 '클럽 5'인가를 설명해주는 대목이었다. 그 뒤에도 한영애의 노래는 록 밴드의 악기 연주, 턴테이블의 치키치키거리는 소리, 랩퍼들의 래핑과 어우러졌다. 턴테이블리즘과 랩·힙합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어설프다'라고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말도 현장에서 나오기는 힘들었을 것 같다.

노래 뿐만 아니라 진행 자체가 하나의 연주였다. 예를 들어 랩퍼들과 더불어 "이 나이에 길을 못 찾았다는 게 말이 돼, 안 돼?"라고 묻다가 "길이 없으면 길 내지 뭐"라고 말한 다음 <말도 안돼>를 부르는 식이었다. 소극장 공연에서 짜증스러운 시간들인 'MR 틀어놓고 노래 부르는 게스트'도 없었고, 뮤지션인지 개그맨이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드는 수다 잔치도 없었다. 중반 이후에는 랩퍼들의 활동이 다소 뜸해졌지만 기존곡들이 새롭게 해석되었기 때문에 색다른 느낌을 주는 건 여전했다. 예를 들어 <마음 깊은 곳에 그대로를>은 보싸 노바 재즈 스타일로, <여울목>은 테크노 스타일로 각각 편곡되었다. 20여곡을 부른 뒤 앵콜로 <코뿔소> 등 두 곡을 부르기까지 해서 오랜 시간이 흐른 줄 알았지만 1시간 40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

이상의 이야기가 '한영애는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단행한 반면, 전인권과 들국화는 영광스러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는 말로 들릴지 모르겠다. 나 역시도 어떤 장면을 목격하기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 장면이란 다름 아니라 한영애의 공연장을 찾은 나이든 관객들은 낯선 사운드에 적잖이 당황했다는 점이다. 특히 2층의 관객들은 모두 기립해서 발광하던 마지막에도 차분히 자리에 앉아 음악을 감상하려고 했다. 아마도 그들은 '베테랑이면 예전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들국화의 공연을 보고난 직후 들었던 약간의 서운한 생각도 바뀌었다. 불완전하면 불완전한대로, 초라하면 초라한대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그다지 문제될 건 없다는 생각 말이다. 문제는 그것이 언제까지 '팬과 함께'할 수 있느냐는 점일 것이다. 한국에서는 그게 참 힘들다. 한영애가 앵콜을 마치고 "우리 모두 곱게 아름답게 나이들어 갑시다"라고 한 말은 비단 음악인들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

는 사람들의 몫인 듯하다. 그래서 쉽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글이 마지막에 이렇게 꼬여버리고 있다.

음악하는 사람들이 보다 많아져야

그때 공연 후반부에서 한영애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녀는 "음악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20배는 많아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음악을 쉽게 들을 수 있는 클럽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하루의 일과가 클럽에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이는 매우 '당위적'인 말로만 들릴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현실은 서양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에 이어 "이런 생각이 서양식 생각으로 들릴 지 모르지만, 이제 한국과 서양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시대도 아닌 것 같습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깨달은 점은 보통 한국인들이 '공연을 보러 간다'는 행위는 매우 특별한 행위라는 새삼스러운 사실이었다. 정식 공연장의 입장료는 각종 제세부담금으로 인해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평일에 공연장을 찾는 일은 여간 수고스러운 일이 아니다. 평일에 공연 시작 시간은 7시 정도이지만, 직장에서 퇴근하고 저녁식사를 마치고 공연장을 찾으려면 이 시간을 맞추기는 어렵다. 그러다보니 공연장은 가는 사람만 계속 가는 곳이 되고 있다.

그래서 공연 문화와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주 5일 근무 라든가' 주 40시간 노동'에 관한 논의가 내게는 새삼스럽다. 여가 시간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공연을 보러 갈 것 아닌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변신이 좋은가, 예전 모습 그대로 남는 게 좋은가라는 질문도 여러 케이스들을 둘러본 뒤에 대답할 문제다. 어떤 경우든 몇 되지도 않는 현역 베테랑 뮤지션들이 팬과 함께 아름답게 나이들어가기 위해서는 열성적인 팬들의 지지(이런 건 늘 있기 마련이다) 못지 않게 정책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중에도 내 귀에는 '한낮 대중음악 공연이 잘 되게 하기 위해 근로의욕을 손상시키려고 하는가'라는 근엄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사 족

●● 전인권은 6월 14일부터 홍대앞의 '쌈지 스페이스'에서 솔로로 장기 공연에 돌입한다. 최성원은 신곡을 만드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고, 밴드는 신곡의 골격이 갖춰지는대로 레코딩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번의 '마약 지지(?)' 발언에 대한 당국의 반응은 아직까지는 크게 없다고 한다. 한영애는 작년에 발매되었지만 유통사의 부도로 시중에서 구하기 힘들어진 5집 앨범에 두 곡의 신곡을 추가하여 <한영애 5+>라는 이름의 새 앨범을 곧 발매할 예정이다. ●●